





서가풍경

‘흙’에 매혹된 한 소설가의 외도와 귀환

소설가 전상국씨의 서가

소설가 전상국씨(60, 강원대 국문과 교수)의 서가는 요새 좀 쓸쓸하다. 주인이 ‘바람’ 나서다. 4년 전 쯤일까. 주인이 흙에 마음을 훌쩍 빼앗겨버리기 시작한 것이다. 간간히 흙내음을 문혀오곤 했다. 무심코 고운 황토를 흘러 눈총을 받기까지 했다. 마음이 떠났는가 싶어 못내 섭섭하다.

알고 보니 주인은 가까운 산자락에 논과 밭을 사 무시로 드나든단다. 올해는 고추농사가 잘 됐는지 만면이 회색이다. “작물은 정직해. 정성들인 만큼 결실을 맺거든.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. 글쓰기와 똑같지”라고 변명하는 걸 들은 적도 있다.

“서재에 들어서기가 두려워져. 뭔가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일 거야. 문자에 갇힌 세계가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.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지쳤나봐. 요즘엔 책읽기보다 자연 읽기가 더 매혹적이야.”

글쓰기의 고통을 짐작하니 안쓰럽기까지 하다.

주인은 문예지 수집광이다. 대학시절에는 청계천변의 헌책방을 이잡듯이 뒤지며 잡지 창간호를 사냥해오곤 했다. 한 시대의 문학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서다. 시집도 ‘인기품목’이다. 언어에 대한 비밀과 시인의 정신세계를 훑쳐보는 즐거움에 푹 빠지곤 했다.

오늘 서가는 주인의 가장 아름다운 영상 하나를 떠올린다. 멀리 금병산 자락을 마주보며 무언가에 홀린 듯 넋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. 그곳엔 작가 김유정의 생가가 있다. ‘멀리 있는 빛’에 매혹된 주인의 추억이 있는 한 서가는 믿는다. 그 빛을 에둘러서 또 다시 허구의 진실을 창조할 것임을.

— 춘천·박천홍 기자

